

신태용호 '유럽 열공'...독일·스웨덴 '자율학습' 모드

월드컵 F조 서로 다른 전훈 행보

3월 24일 북아일랜드·28일 폴란드와 격돌 한국, 스웨덴·독일 대비 스팅팅 일정 완성 독일·스웨덴은 맞춤 상대 아닌 국가들 초청

신태용(48)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스웨덴~멕시코와 대회 조별리그(F조)에서 경쟁해야 한다. 맞춤형 평가전 상대를 섭외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부지런히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22일부터 진행될 2주일간의 동계강화훈련에서 몰도바~자메이카~라트비아를 차례로 만날 대표팀의 3월 유럽원정 시리즈까지 17일 완성됐다. 먼저 3월 24일(한국시간) 북아일랜드와 벨라루스 원저파크 스타디움에서 평가전을 갖고, 장소를 옮겨 3월 28일 폴란드와 격돌하는 스케줄. 힘과 높이를 내세운 스웨덴~독일을 대비한 최적의 스팅팅 파트너라는 평가다.

폴란드의 경우, 같은 조에 편성된 일본을 겨냥해 지난해 12월부터 우리와 지속적인 교감을 나눴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북아일



신태용 감독



독일 리브 감독



스웨덴 안데르손 감독

랜드는 러시아월드컵 유럽예선(C조)에서 6승 1무3패를 기록, 독일에 이어 조 2위로 플레이오프(PO)에 나섰다. 아쉽게도 스위스에 1무

1패를 거두 본선에 나서지 못했으나 특유의 끈끈함과 조직력을 갖췄다. 그런데 정작 스웨덴과 독일은 우리와의 경

기에 썩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대회 조별리그 첫 상대인 스웨덴은 3월 25일 남미 칠레와 겨룬 뒤 28일 루마니아와

일전을 갖는다. 심지어 러시아 입성 직전인 6월 2일에도 덴마크와 친선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설 독일도 마찬가지다. 3월 24일 '무적함대' 스페인에 이어 3월 28일 '삼바축구' 브라질을 초청한다. 6월 3일에는 오스트리아와 친선경기를 통해 컨디션 확인할 참이다.

심지어 스웨덴~독일은 북중미 멕시코도 딱히 염두에 두지 않은 듯 하다. 각각 상대할 '남미 강호'칠레~브라질은 멕시코와 플레이패턴이 비슷하지 않다. 맞춤형 상대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향후 북중미 국가와 매치 업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은 자신들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ฟุตบอล 등 주요 매체들은 최근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우리와 5월 중 평가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리아드 마레즈, 이슬람 슬리마니(이상 레스터시티) 등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한 알제리는 한국과 구원이 있다. 현재 일본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바히드 할릴호지치 감독이 이끌던 2014브라질월드컵 당시 우리는 2-4로 참패했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국가와 맞서지 않지만 알제리는 과거 스토리와 전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팬층은 상대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한국축구 미래 설계자...TD 육성에 필요한 것들

(테크니컬 디렉터)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김판곤 감독선임위원장이 전한 TD역할론

세계 트렌드 읽고 비전 제시하는 게 임무 선수·지도자·행정 경험·넓은 안목도 필수 국내 인재 교육·TD에 대한 이해 첫 걸음

최근 몇 년간 한국축구의 기상은 흐림이다. 국가대표팀이나 연령별 대표팀, K리그, 여자축구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운치가 않다. 그렇다고 퇴보했다고 하기엔 지나치다.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낸 건 사실이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반성도 하고, 대안도 찾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가 테크니컬 디렉터(Technical Director·이하 TD)다.

대한축구협회 김판곤(48)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용어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축구협회에서 자신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축구는) 테크니컬 디렉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쉽게 말해 TD는 팀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축구가 발전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축구의 정체 원인이 장기적인 비전 부재와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해보면 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솔깃했다.

김 위원장은 '홍콩의 히딩크'로 불린다. 6년간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2014년부터는 홍콩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을 겸임하며 홍콩축구의 큰 그림을 그렸다. 각 연령에 적합한 훈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들었다.

후한 평가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도 그의 경험을 높이 샀다. 김 위원장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실시한 코스에 참가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TD는 다양한 자질을 갖춰야한다. 대표팀 경력이 반드시 필



테크니컬 디렉터(TD)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지만 국제 축구계에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소속 팀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TD는 최근 홍콩 생활을 마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의 입에서도 등장했다. 스포츠동아IDB

요한 건 아니지만 프로선수로서의 높은 수준의 선수 경험, 높은 수준의 지도자 경험이 있어야한다. 지도자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도 필요하다. 이는 훈련의 질을 보고 팀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행정 경험도 중요하다. 팀이 나아갈 방향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짜는 능력은 필수다. 세계의 트렌드를 읽고,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게 TD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의 TD라면 대표팀이나 유소년, 여자축구, 풋살 등 다양한 분야를 꿰뚫고 있어야한다. 현 수준을 파악하고, 장단기 목표치를 설정하며, 실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작업을 해나가는 지휘관이 TD다.

대표팀 감독이 교체됐다고 해서 한국축구의 방향성이 갑자기 바뀌면 곤란하고, 감독과 기술위원장이 한꺼번에 물러났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는 프로구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클럽의 철학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건 기본이다. 구단 철학에 맞는 코칭스태프를 구성해야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수 영입과 이적, 유소년 육성 방향에 대한 막중한 권한도 부여된다. 이렇게 해야만 프로팀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클럽의 나아갈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없게 된다.

전북 현대가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장을 지낸 조공연(57) 위원장을 TD로 영입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클럽의 철학을 세우고 팀의 정체성과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프로 구단들이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았던 건 감독이 바뀌면 너무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스부터 주전선수, 그리고 팀의 방향성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TD는 한 세대를 준비해야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훌륭한 TD를 길러내는 일이다. 비전과 감각, 추진력, 공정성, 안목 등 넓고 깊은 자질을 갖춘 능력자를 발굴하거나 또는 교육을 통해 육성해야한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 좋은 후보들이 많지만,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교육을 통해 훌륭한 디렉터를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구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재 육성이 중요한 일이다. 정체기의 한국축구는 더욱 절실하다. TD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도 같은 맥락이다. 체육학 박사 choihg2@donga.com

'리그-FA컵 챔프' 전북-울산 3월 1일 개막전

2018 K리그클래식 일정 확정 발표

챔피언 매치부터 데얀 매치, 동해안 데뷔까지, 2018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을 수놓을 정규라운드 일정이 배일을 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새 시즌 개막전 매치업을 포함한 33라운드 전체 일정을 발표했다. 이후 벌어지는 스플릿 5라운드에는 추후 팀과 일정을 확정해 발표한다.

우선 모든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공식 개막전은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우승팀 전북 현대-2017년 FA컵 챔피언 울산 현대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삼일절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같은 날 수원 삼성과 전남 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와 FC서울도 첫 경기를 치른다.

3월 첫 주말에도 개막전 일정이 이어진다. 3일에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FC, 강원FC와 인천 유나이티드, 4일에는 경남FC와 상주 상무가 각각 개막전을 펼친다. 한편 지난해 K리그 챔피언(2부리그) 우승을 차지한 경남은 이날 경기를 통해 클래식 복귀전에 나선다.

4월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데얀 매치'다. 서울의 터줏대감으로 활약했던 외국인 공격수 데얀이 이번 시즌

2018 K리그 클래식 정규라운드 주요일정

일시	매치업	관련 포인트
3월 1일	전북-울산	클래식 챔피언 vs FA컵 챔피언
3월 4일	경남-상주	경남 클래식 복귀전
4월 8일	수원-서울	데얀 매치
5월 5일	울산-포항	동해안 데뷔
	전남-전북	호남 데뷔
	서울-수원	서퍼매치
5월 21일	월드컵	5월 20일 14라운드 이후
~7월 6일	휴식기	7월 7일 15라운드 재개

* 3~5월, 9~11월 주말경기는 오후 2시와 4시 분산 개최

을 앞두고 라이벌 수원으로 등지를 옮기면서 기존의 슈퍼매치가 데얀 매치로 판을 키웠다. 4월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지역 데뷔가 펼쳐진다.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데뷔'와 전남과 전북의 '호남 데뷔'가 예정되었다. 데얀 매치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한편 K리그 클래식은 6월 14일 개막하는 2018러시아월드컵을 위해 잠시 휴식기를 갖는다. 5월 20일 14라운드를 끝으로 7월 7일 15라운드 재개까지 50일 가까이 일정을 중단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외인선수에 돌아난 K리그...1면에서 이어집니다

파지고 보면 구단들의 모습도 울지 않다. 단 순히 검증된 용병이라는 이유로 구단끼리 과열 경쟁을 펼치고 이 때문에 시장가보다 3~4배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해외시장에서 K리그는 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으니 K리그 인재를 희망하는 외국인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몸값을 부풀릴 수 있는지 나쁜 사례를 너무나 쉽게 배우고 이를 이용해 돈을 챙기고 있다.

A는 우리 구단과 에이전트들을 호구로 잡고 27만 달러의 몸값을 80만 달러(약 8억5000만

원) 까지 올렸다. 태국은 A의 가치를 최대 55만 달러(약 6억 원)로 판단했다. 그런데 K리그에서는 80만 달러 선수가 됐다. 이런 것이 바로 K리그의 거품이고 귀중한 외화의 낭비다.

많은 에이전트들은 "K리그 팀과 A가 계약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A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냥 끌려간 부분은 죄어줄 필요가 있다. 많은 대리인이 합류하는 문어발식 접촉과 구단들의 과열 경쟁이 야기한 사례"라고 꼬집는다. K리그의 외국인선수 계약에는 너무나 많은 비정상성이 존재하고 그 것은 모두 거품으로 변한다. 그래서 외국인선수 눈에는 K리그가 호구이자 봉처처럼 보인다.

이근호 멀티골...김봉길호, 호주 꺾고 8강 진출

(포항)

조 1위 통과...20일 말레이시아와 8강전



김봉길(52)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국가대표팀이 우여곡절 끝에 '2018 아시아 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은 17일 중국 쿤산스포츠펀터에서 열린 대회 D조 예선 호주와의 3차전에서 2골·1도움

으로 맹활약한 이근호(22·포항 스틸러스)를 앞세워 3-2 승리를 거뒀다. 11일 베트남전 2-1 승리와 14일 시리아전 0-0 무승부를 포함해 최종 성적 2승1무, 조 1위(승점 7)로 8강행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C조 예선을 2위로 통과한 말레이시아와 20일 같은 곳에서 준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예선 내내 답답한 느낌이 짙었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팀 전체가 활기를 띄었다.



이근호

가 상대 골문 앞까지 넘어온 패스를 받아 단독 찬스를 잡았다. 호주 골키퍼와 수비수를 단번에 제친 뒤 슈트를 한 한승규는 수비벽에 튕겨져 나온 볼을 곧바로 이근호에게 연결했고, 이근호가 침착하게 골로 완성시켰다.

기선을 잡은 한국은 계속해 호주를 밀어붙였다. 이근호와 윤승원 등이 적진 깊숙한 곳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기다리던 추가골도 일찌감치 나왔다. 전반 44분 페널티 박스에서 한승규가 이근호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돌파에 성공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들어서는 호주가 반격에 나섰다. 날카로운 크로스와 침투 패스를 통해 한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작 골문이 열린 쪽은 호주였다. 후반 20분 이근호가 국태정(23·전북 현대)의 패스를 골로 연결해 3-0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고 방심한 순간, 위기가 찾아왔다. 후반 27분 니콜라스 카우번에게 만회골을 내준 뒤 4분 만에 다시 트레트 부하지에게 추가골을 허용했다. 상대에 너무나도 많은 공간을 내준 부분이 연속 실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골키퍼 강현무(23·포항)의 막판 선방 페이드로 승리를 지킬 수 있었다. 4강 진출과 우승을 목표로 잡은 한국은 로선 되짚어봐야 할 숙제를 확인한 경기였다. 고봉준 기자